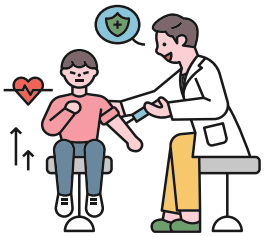
간편한 소식 타임즈

「간편한 소식 타임즈」는 2월 한 달간 일간지에 나온 사회 이슈를 편하고 보기 쉽게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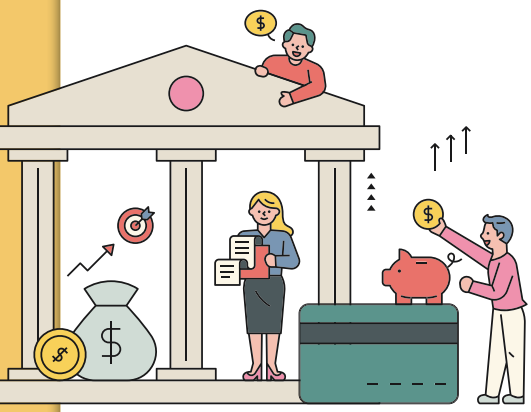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6일부터 접종 시작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 머무르는 환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첫 접종에 사용되며, 화이자 백신은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초도물량이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다.



〈국내도입 코로나19 백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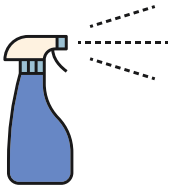
	도입시작 시기	예방효과	접종 횟수	보관조건
아스트라제네카 (바이러스백터)	1분기 (2월말~)	62~79% (영국 · 브라질 3상 62% 저용량 · 표준용량 평균 70%)	2회	2~8℃(6개월)
인센 (바이러스백터)	2분기	평균 66% (미국 72%, 남아공 57%, 남미 66%)	1회	2~8℃(3개월) 영하 20℃(24개월)
모더나 (mRNA)	2분기	94.1%	2회	2~8℃(30일) 영하 20℃(6개월)
화이자 (mRNA)	3분기 (COMAX가 공급하는 11만7천 도스는 2월 중순 이후 도입)	95%	2회	2~8℃(5일) 영하 75℃±15℃(6개월)
노바백스 (유전자 재조합)	미정	89.3% (영국발 변이 85.6%, 남아공발 변이 60%)	2회	2~8℃(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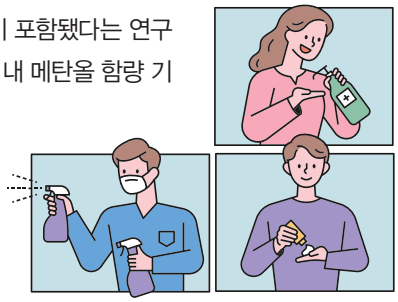
#나랏빚 내년 1,000조, 9년 후 2,000조

정부의 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2030년에는 2,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지 확대 등 지출이 늘어나면 적자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재정 지출은 늘고, 세수는 줄면 국가재정 그래프가 '악어 입'과 같이 벌어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손소독제서 '유독성' 메탄올 검출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중에 유통 중인 34개 손소독제 중 33개의 손소독제에 실명, 신경계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 메탄올이 포함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3개 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물티슈 내 메탄올 함량 기준치인 20ppm이 넘는 메탄올이 검출된 제품은 14개로 집계됐다. 메탄올은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식약처는 지난해 9월 배포한 자료에서 메탄올에 오염된 손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중독 위험이 있으며, 삼켰을 때는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미국, "여름까지 집단면역 어렵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여름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어렵다며 기대치를 낮췄다. 백신 보급 속도가 예상보다 다소 더딘데다 각종 변이까지 속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기 집단면역을 기대했던 것에서 한 발 후퇴한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첫 지역 전파

전파력이 훨씬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변이 코로나19바이러스가 국내 지역사회에서 전파된 사례가 3일 처음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 이후 국내에서 27건의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5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5건 가운데 영국발 변이 4건은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첫 사례다.